



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안컵 준결승 이라크전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볼을 놓친 한국의 이운재 골키퍼가 바닥에 누워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이승엽이 25일 도쿄돔에서 열린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전 8회 1사 1, 2루에서 3점포를 작렬시키고 있다.

헛발질 120분…쓰러진 베어벡호

47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도전한 한국 축구의 꿈이 날
아갔다.

핀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5일 오후(이
하 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부킷 잘릴 국

립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중동의
복병 이라크를 맞아 전·후반과 연장 120분
을 득점없이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4로 무
를 끊었다.

1988년 카타르 대회 이후 19년 만에 결승
진출을 노렸던 한국은 이로써 28일 오후 9시
35분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랑 경기장에
서 사우디 아라비아-일본전 폐자와 3·4위전
을 벌이게 됐다.

조별리그에서 치욕의 탈락 위기까지 물리
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베어벡호가 결국
공격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결승 문턱에서
좌초하고 말았다.

5경기에서 고작 세 골밖에 넣지 못한 답답
한 공격력이 재앙을 부르고 말았다.

베어벡 감독은 끝까지 단조로운 전술에
의존한 채 돌파구를 열지 못했고, 태극호 공
격수들은 약속이나 한 듯 깊은 침묵에 빠져



한국, 이라크와 승부차기 접전 3-4 패 공격력 한계 여전… 결승 문턱서 좌절

들었다.

오히려 이라크에 많은 실점 기회를 내줬고
연장과 승부차기까지 물고 갔지만 두 번
연속 운이 따르지는 않았다. 베어벡 감독은
이전 경기와 달리 이천수를 공격형 미드필
더로 포진시켜 공격진을 변형했다.

조재진을 중앙 원톱에 놓고 염기훈과 최
성국을 좌우 날개로 펼쳐 측면과 중앙의 화
력을 동시에 높이려는 시도였다.

수비형 미드필더 손대호, 김상식과 포백
김치우, 김진규, 강민수, 오법석은 그대로
나왔다. 수문장도 변함없이 이운재.

이라크는 간관 골득이 유니스를 중앙에
깊이 끌어놓고 하라트, 마디가 좌우 측면을
노렸다. 공수 조율을 맡은 나샤트의 앞에 카
라르, 쿠사이를 배치해 미드필더를 두텁게
짰다.

경기 1시간 전부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진

우중전에서 한국은 초반부터 불안했다.

시작하자마자 유니스의 돌파를 허용했고
슈팅이 헛발질로 끝나 위기를 넘겼다.

27분 카리르의 디아ingers 헤딩이 머리에 걸
릴뻔 했고, 39분 유니스의 기습 터닝슛은 빗
맞아 골포스트를 살짝 벗어갔다.

베어벡호는 크로스로 조재진의 머리를 겨
냥하거나 이천수, 최성국, 염기훈이 측면과
중앙을 엇갈리며 기회를 엿봤으나 이라크의
골문을 열지는 못했다.

후반 교체없이 나온 한국은 후반 3분 맘놓
고 찬 이천수의 터닝슛으로 공세를 쳤다. 베
어벡 감독은 후반 12분 공격 상향이 강한 김
정우를 수비형 김상식 대신 넣어 승부수를
띄웠으나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했다.

후반 20분 허를 찌른 염기훈의 강력한 원
발 슛이 골문 앞에서 바운드돼 골문으로 빨
려들 듯 했으나 골키퍼 누르가 몸을 던져 겨

우쳐냈다.

공격의 흐름을 가져온 한국은 세트 플레
이에서 팽개쳤지만 23분엔 마디의 터닝
슛이 때깔때깔 굴러 골대를 스치듯 빗나갔
다. 후반 25분 수비수 뒤로 돌아 들어간 이
천수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몸을 날리며
회심의 오른발 터닝 발리슛을 끊었으나 골
포스트 옆 그물을 훔들고 말았다.

후반 40분 최성국이 실려나가면서 이동국
까지 투입한 베어벡호는 염기훈의 프리킥이
무위로 돌아가 또 연장 헐투를 맞이했다.

두 경기 연속 연장 승부에 체력이 떨어진
한국은 연장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
부차기로 넘어갔다.

베어벡 감독은 이운재를 믿고 있었지만
이라크 키커들은 차례로 킥을 끊었다.

후죽을 한 이라크 3번 키커 하이데르의 킥
이 이운재에 잡힐 뻔 했지만 겨드랑이 사이
로 파고 들었다. 불길한 예감이 든 한국은 3-
3에서 4번 키커 염기훈의 킥이 골키퍼 손에
걸렸다.

이어 이라크 4번 키커에게 골을 허용하고
마지막 5번 키커로 나선 김정우의 킥이 골
대에 맞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IA 이용규 ‘무활 찬가’



(이용규)

이런 것을 두고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하나 보다.
‘상전벽해’는 뽕나루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
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요즘 KIA 톱타자 이용규(22)를 보면 딱 그렇다.

전반기 내내 1할타를 맴돌던 ‘날쌘돌이’ 이용규가 7월
들어 맨투를 휘두르며 든든한 1번타자로 돌아온 것.

최하위 KIA가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서머리그에서 부
적 힘을 내는 데에는 부상에서 복귀한 ‘거포’ 최희섭(28)
과 이용규의 활약이 크다.

이용규는 지난 24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롯데와 홈 경기
에서도 5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 1도루로 맹활약해 팀
의 7-2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이용규는 지난 8일 현대전
부터 10경기 연속 안타를 터뜨려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
고 있다.

또 출루가 많아지면서 빠른 발을 이용해 최근 10경기에
서 도루 5개를 성공해 톱타자 역할을 100% 해내고 있다.

7월 들어 타율은 0.377(61타수 23안타)나 되고 득점도
9개를 기록했다. 전반기에 고전하던 이용규의 부활은
KIA에게 무더운 여름철 소나기처럼 시원하게 다가온다.

이용규는 프로 3년차이던 지난 해 정교한 타격을 자랑
하며 최다 안타왕(154개)에 오르고 외야수 골든글러브를
차지하며 최고 시즌을 보냈다.

하지만 지난 겨울 오른쪽 팔목 부상으로 전지훈련에 늦
게 참여하면서 훈련량이 부족했고 투수들의 견제까지 심
해진 탓에 전반기 내내 슬럼프에 시달렸다.

7월 중 타율 0.377 맹타

최근 10경기서 도루 5개

승부욕이 철철 넘치는 이용규는 초조한 마음에 방망이
를 길게 잡아보는 등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그동안 타격할 때 들던 오른발을
땅에 고정시키는 타격폼으로 바꾸면서 효과를 보기 시작
했다. 불안했던 타격 자세가 안정되고 선구안이 좋아지면
서 방망이가 터지기 시작한 것.

타격폼을 수정한 것 외에 몸쪽 볼에 대한 심리적 부담
을 떨쳐낸 것도 다시 일어서게 된 밀거름이 됐다.

좌타자 이용규는 지난 시즌 좌측 외야로 날아가는 타
구가 오른쪽 보다 많을 정도로 밀어치기애에 능했고 상대
적으로 몸쪽 볼에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통 타자들은 몸쪽 볼은 바깥쪽보다 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짧고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많이 느끼며 공략하기 어
렵다고 지적된다.

이용규는 “몸쪽 볼에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하지만 올해는 훈련 부족에다 상대 투수들이 몸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페이스를 잃었었다. 몸쪽 공을 너무
의식하다보니 좋아하는 다른 코스의 공도 제대로 치기 어려웠다. 이제 몸쪽 공은 커트해 낼 정도로 자신감이 생
겼다”고 털어놓는다.

“홈런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고 안타만 많이 치고 싶
다”며 활짝 웃는 이용규가 KIA의 상승세를 계속 이끌기
팬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손영민 3타자 연속 死球 ‘으악’

KIA, 롯데에 8-15 대패



상성 PAIVV 프로야구

승부근성을 과시

하던 ‘호랑이 군

단’이 잠시 숨고

르기 들어갔다.

KIA는 25일

광주구장에서 계속된 2007 프로야구 롯데

전에서 김종국의 솔로포와 ‘이적생’ 조경

환의 3타점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마운드

가 붕괴되면서 8-15로 패했다. KIA의 연

승행진도 ‘3’에서 중단됐다.

이날 동안 4시간 31분이 소요, 올 시즌 정

규이닝 최장시간 기록(4시간 29분)을 경

신했다.

또 KIA 선발 손영민은 0.1이닝을 던지

는 동안 3타자 연속 몸에 맞는 볼을 허용,

이 부문에서 불명예스런 역대 타이기록을

세웠다.

KIA는 선발 손영민을 시작으로 문현정,

신용운, 김희걸, 양현종, 이상학 등을 줄줄이

마운드에 세웠으나 롯데 타선에 장단

15안타를 얻어맞고 맥없이 무너졌다.

먼저 4점을 내준 KIA는 1회말 공격에서

선두타자 김종국의 좌측답장을 넘기는 솔

로포(시즌 4호)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

다. 다음타자 이현근의 볼넷과 장성호의
증전안타로 무사 1, 2루를 만들었고 메이
저리그 출신 4번타자 최희섭의 우익수 뒤
로 빠지는 2루타로 1점을 더 추격했다.

계속된 찬스에서 KIA는 흥세원의 몸에
맞는 볼로 무사 무루를 만든 뒤 조경환의
적시타와 이종범의 희생플라이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3회에 3점, 4회에 1점을 또 실점한 KIA
는 4-8로 뒤진 4회말 1점을 만회한 뒤 둘
이온 5회말 공격에서 선두타자 최희섭의
볼넷과 흥세원의 2루타로 만든 무사 2, 3
루에서 조경환의 우중간을 푸는 2루타
로 2점을 보태 접수차를 ‘-1’로 접혔다.

하지만 추격전은 여기서 끝이었다.

KIA는 6회에만 6실점한 뒤 7회에도 추
가로 1실점하며 추격의지를 접했다.

KIA는 이날 패배로 서머리그 전적 4승2
패를 기록, 삼성과 공동선두를 유지했다.
정규리그 성적은 선두 SK와 16.5게임차
풀찌에 머물렀다.

한편 삼성은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전에서
심정수의 3점포를 앞세워 3-2로 승리. 두
산 선발 다니엘 리오스의 선발 연승행진을
'11'에서 끊었다. 현대는 SK에 10-5 대승
을 거뒀고, 한화는 LG와 접전끝에 5-4로
신승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